

Life As Mission



벧엘교회 삶터 사역 기초 과정 교재

삶터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Copyright © 2019 by Life as Mission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이 교재는 벧엘 교회 삶터 사역원의 문서화 된 승낙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복사와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일상에서

일상 1
삶터의 제자도

일상 2
세상 속의 삶터

일상 3
일과 소명

일상 4
일과 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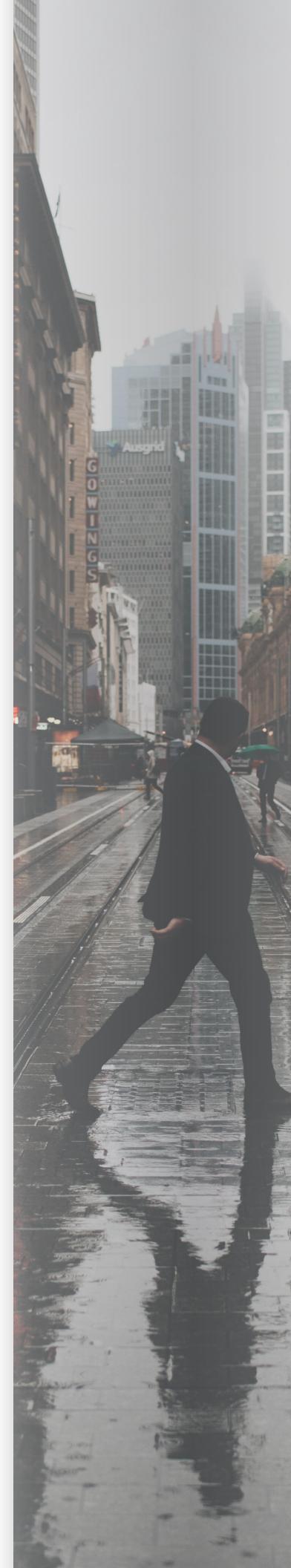
일상 5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제자로

제자 1
삶터의 청지기

제자 2
삶터의 제사장

제자 3
세상 속 제자도



일상 1

삶터의 제자도

삶터

삶터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수고하고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등, 그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터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며,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삶터와 믿음

우리의 삶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먹고 마시고 주고 받고, 일하고 즐기는 일상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터와 신앙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삶터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 또한 돈과 성공과 명예 등 삶터에서 벌어지는 온갖 유혹 때문에 신앙을 공격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물기를 최소화하고 또 가능한 피해야 할 공간이 삶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터에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삶터의 커다란 실재 앞에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생활과 삶터에서의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삶터에서 믿음은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자도의 본질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19-20, 개역개정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령에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관계적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제자를 삼기 위한 수단으로 세가지의 관계적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 수평적 관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 모든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수직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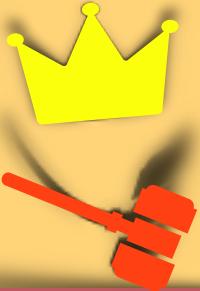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한 전도를 해야 합니다.

3 책임적 관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란, 단지 ‘지식의 전달’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책임지는 것을 동반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즉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3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눅 17:20-21)

1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으로 구분 되지 않습니다.

3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삶 속에 임합니다.

4 하나님 나라의 비밀 : '이미' 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의 긴장)

삶터 사역의 비전



삶터 사역의 비전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으로 모든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와 세상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나눔

1 나의 삶터:

각자 자신의 삶터를 소개해 주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이며, 그 곳에서 자신이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 등, 자신의 삶터의 모습을 소개해 주세요.

2 삶터의 비전:

삶터 사역을 시작하는 각자의 소망과 비전을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 삶터에 일어난 변화,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주세요.

일상 2

세상 속의 삶터



우리의 삶터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그 곳에서 세상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깊은 어두움 속에 있으며 우리는 그 어두움을 우리의 삶터에서 매 순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어두움의 근원은 인간의 죄이며 (로마서 3:23), 다양한 범죄 행위로 나타나지만 (창세기 4:8)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세속주의(secularism)입니다 (창세기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흘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창세기 11:4, 개역개정

삶의 3가지 형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고린도후서 4:18, 개역개정

- **세속주의:** 보이는 유한한 것을 주목하고 (fixing our eyes on what is seen), 보이는것을 따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
- **도피주의:**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기피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삶.
- **신본주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 관점에서 보이는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 성경속에 나타나는 신본주의 (믿음의 삶)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6, 개역개정)

현대사회와 세속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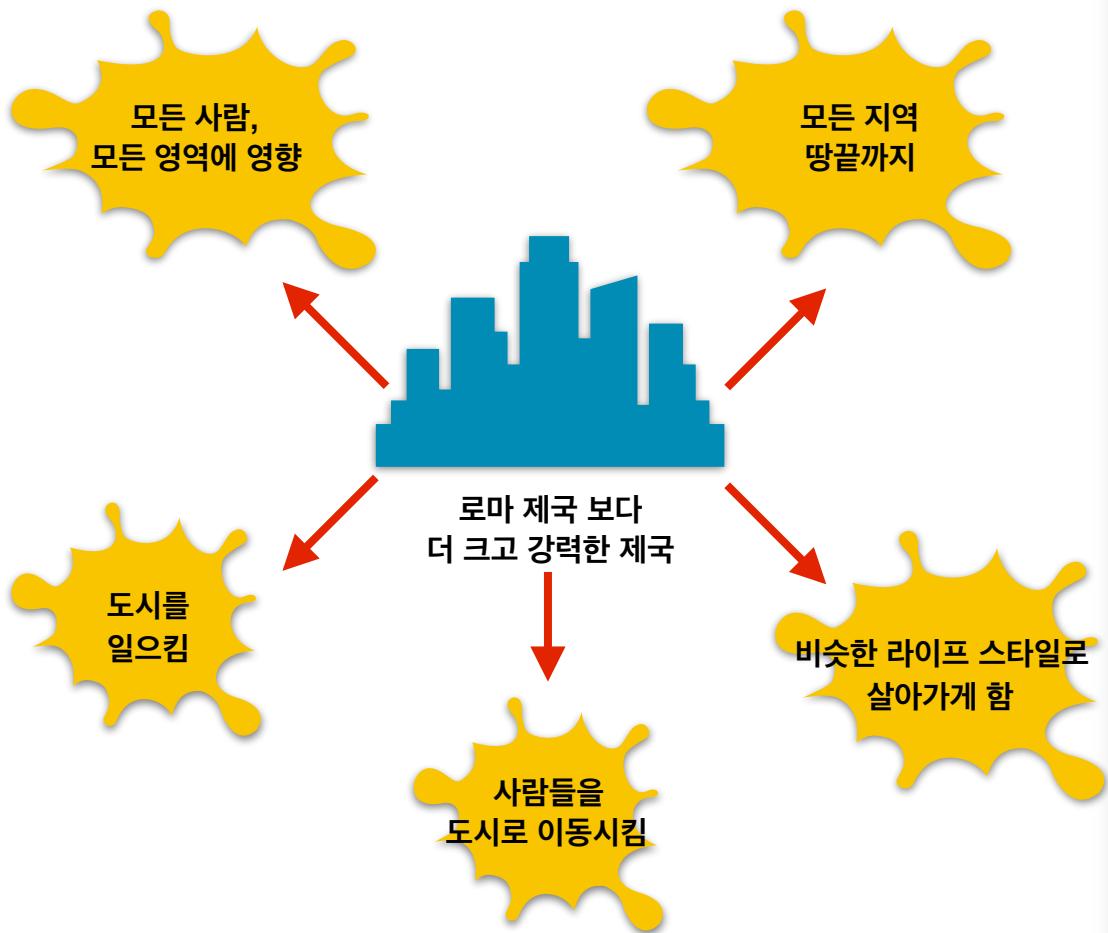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 세속주의는 과거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와 세상을 지배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라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무서운 속도로 온 세상을 통합시켜가며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깊이,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속으로 들어와 삶터를 지배하고 세속주의를 따르게 합니다. 이 세속주의는 우리의 삶터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





비즈니스 제국과 세속주의



- ① 비즈니스 제국은 일상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 ② 비즈니스 제국은 사람을 연결하고, 국가의 경계와 통제를 넘어섭니다.
- ③ 공통의 언어와 가치로, 하나의 문화와 세계관을 갖게 함으로
같은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속주의의 도전

세속주의는 애매하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그 자체는 죄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 할 때에 세속주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위협하고 변질 시킵니다.



- 1** 신앙과 삶 분리 합니다.
- 2** 신앙을 삶의 변두리로, 주변화 시킵니다.
- 3** 성공의 우상과 신화를 따르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 4**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성장을 가로 막습니다.
- 5** 자기 중심적 소비 문화를 확산하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파괴합니다.
- 6** 세상과 구별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 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터속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와 (과학주의, 성과주의, 물질주의, 권력주의, 율법주의, 소비주의, 성공주의 등)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해결책: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속주의의 영향력은 너무나 어둡고 강력하여 어떤 노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세속주의의 어두움은 세상에 오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실 때 사라집니다. 복음은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기고 삶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 요한복음 1:9, 개역개정

또한 복음은 우리의 삶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그 소망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스리게 하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세속주의를 따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태복음 6:33, 개역개정

삶터의 현실: 이미 그러나 아직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 마태복음 13:26-30, 개역개정

삶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삶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삶터에서 보다 종교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 예배 의식,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전도, 현금, 등을 더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터에 임하는 목적과 행하는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우리의 삶터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적인 영역과 내가 다스리며 조절 하던 일상의 영역이 다른 영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성속(聖俗)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모두 우리의 일상, 삶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증명 합니다.



겨자씨 비유	망대
포도원	누룩과 떡
주인과 일꾼	밭에 감추인 보화
혼인	빛진 자의 탕감
	달란트 비유

소그룹 나눔

1 세속주의: 우리의 삶터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 혹은 직장에 가장 큰 영향과 도전을 주는 세속주의적인 생각, 논리와 관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우리 삶터에 들어온 세속주의를 분별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2 삶의 변화: 세속주의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 하셨습니까? 일상의 삶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는 마음의 벽은 무엇입니까? 삶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기 위하여 당신이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목적과 방식은 무엇입니까?

일상 3

일과 소명



우리의 일상에는 늘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 자체에서 오는 피로와 관계의 갈등 그리고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 구조 등의 어려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며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일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일을 하며 겪는 문제를 해결하여 아무런 고민과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가능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질문하며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종교 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신앙이 표출 되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증명할 때, 신앙 생활을 잘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곧 신앙의 실습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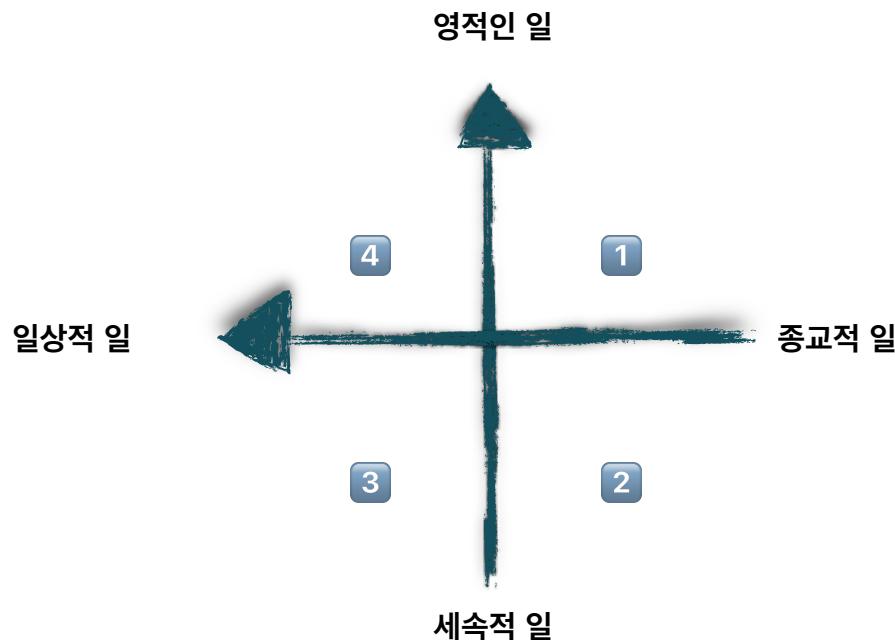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 다니엘 6:4, 개역개정

거듭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언어와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참 신앙인 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품과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물론,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마태복음 5:16, 개역개정

2 일에 있어서도 영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어진 일 속에서 영성을 갖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 이기도 합니다.



- 예배 (종교적일)
 - 중세교회: 1 → 2 (예배를 세속화 시킴)
 - 종교개혁: 2 → 1 (예배를 영적인 일로 개혁)



일의 신학

우리의 일과 또 우리가 속한 장소에서 영성을 극대화 시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해야하는가?', '성경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종합한 것을 '**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감사한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창세기 부터 계시록 까지 일에 관한 일관 된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 하시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일 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도록 교훈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어진 일 속에서 영성을 갖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

a. 일은 저주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창세기 3:16-17, 개역개정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일의 시작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을 직접 고안 하시고 먼저 일 하셨습니다.

*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으로 바라 본 일에 대한 해석

• 창조(창1:28)

: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태초에 일은 인간에 축복이었고,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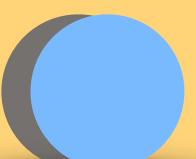
• 타락(창3:17-19)

: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즉, 일은 축복에서 고통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 양상)



• 구속(골3:23)

: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이 구속 될 때, 모든 만물도 구속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에 대하는 구속적 관점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이 하여야 합니다.
(단, 주께 하듯 하지만 일이 주님이 되어선 안됩니다.)



b. 일에 있어 성속(聖俗)이 구분되어야 한다 (장소의 구분)

우리는 각자 속한 자리, 즉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얼마든지 영적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파괴된 전쟁터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해서 거룩이 보장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 출애굽기 3:5, 개역개정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던 곳은 그저 평범한 목축업이 이루어지던 생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장소를 둘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이분법)

- 하나님의 일 (Beruf)

: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으로 세워졌다는 생각
교회 일, 교회 직분, 제자화, 선교, 목회 등.

- 세상의 일(Arbeit)

: 수도사의 일이 아닌 모든 일.
생계를 위한 일,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일상 생활 등.

이 모든 것은 일의 신학이 바로 성립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상에서의 활동 시간이 많은 성도는 더욱이 일의 신학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자신의 일에 대한 해석력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성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의심이나 한탄을 의미하지 않고, 일과 소명에 대한 확신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소그룹 나눔

1 당신의 신앙은 양방향(종교생활/일상생활)으로 잘 표출 되고 있습니까?

2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성속이 구분 되는 장소 또는 일이 있습니까?

3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일의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일상 4

일과 안식

편하지 않은 쉼

오늘날 현대인들은 안식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과도한 몰두와 집착, 또 모든 사회 구조의 연결이 빠른 템포로 이루어져,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쉼을 누리면서도 다음 일을 생각하고, 쉼을 적게 누리는 것이 경쟁력 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안식하는 능력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집중력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의 확보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쉼이 없이 일에 몰두 함으로 안식의 능력이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시간 또한 일에 하나로 여깁니다. 따라서, 하긴 하지만 되도록 짧게, 기도 시간도 짧게, 예배도 짧게 드리려 합니다. 길어지면 불안하고, 가만히 멈춰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쉼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쉼은 필수적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쉼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의 쉼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의 쉼을 넘어선 영적인 쉼을 얻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마지막에 쉼표를 찍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어진 인간의 사역에도 쉼표가 올바로 찍힐 때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쉼,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 에스겔 20:20, 개역개정

성경은 안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은 첫 장 부터 하나님의 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마지막은 쉼, '안식' 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입니다. 일과 쉼은 결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일에는 쉼이 따르고, 쉼은 일의 또 다른 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안식

a. 돌아보게 하심

하나님은 일과 안식 속에 기쁨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신 후에 창조물을 바라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후에 만드신 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창1:3-5)

이러한 과정, 일(창조)하시고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과정은(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대하는 마음, 일을 이루신 다음에 결과를 바라보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낮과 밤을 나누셔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신 것과 같이, 일을 한 후에는 그 일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쉼의 결론적인 모습은 일곱째 날에 더욱 자세히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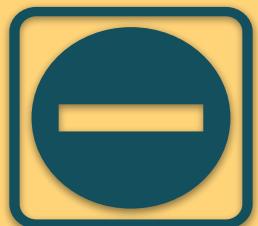
b. 일의 한계를 정하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일을 제한 하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 두 가지 나무, 즉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 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2:16-17, 개역개정



'한계 안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2 십계명(사계명)에 나타난 안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출애굽기 20:8-11, 개역개정



a. 기억하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억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코르’(זִכְּרָה)는 명령형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 문화속에서는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고대 국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하는 동안 주변 나라는 계속 칼을 만들고 화살을 제작하며 병사를 훈련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경제 및 전쟁,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to keep it holy

b. 거룩히 지키라

한글 개역 성경은 ‘거룩히 지키라’를 명령형으로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 성경으로 볼 때,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명령이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안식일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여 이 날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삼가하고,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분께 더욱 헌신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c. 안식의 대상

노동 금지 대상으로 크게 네 부류가 제시되고 있다. 즉 자신을 포함한 가족,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들, 자신의 소유인 가축, 그리고 자신의 손님인 나그네들입니다.

-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 자기 자신만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道)를 그대로 전수해야 합니다.
- **종들:** 종에게도 안식일의 휴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들은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안식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 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안식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며, 종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 **가축:** 안식의 은혜는 영혼을 지닌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개 미물(微物)에 불과한 짐승에게 까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물들이기 때문입니다.(시 50 :10)
- **나그네:**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주거 영역 안이나 그 영향권 안에 머무는 나그네나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삶의 뿌리를 내린 외국인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만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구속 계획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에 밤낮으로 일했고 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한 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은 그 때까지 '일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은 너무도 낯선 단어 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쉬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쉬는 것은 죄짓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열심은 우리가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주 안에서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적인 자유함과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갈라디아서 5:1, 개역개정

우리는 왜 안식하지 못하는가?

1 성공과 전문성이 우상화 될 때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가 낱낱이 벌거벗겨져 자신의 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쉼 없이 노력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과 전문성이라는 결과를 얻게 할 수는 있지만, 성공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과 충족감이 커질 때,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겨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어렵게 얻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2 생존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바뀔 때

자신과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일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의 축적은, 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쉬어서는 안된다는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가

1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육신의 쉼 만을 얻는 것은 성도가 누릴 최선의 안식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일주일 중 하루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반성합니다. 신자의 안식은 달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하신 목적이 안식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육신과 영의 유익을 위해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째, 안식은 인간의 육신에 유익이 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노동을 감당 할 수 있는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일을 계속한다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에 지쳐 건강을 상하게 됨은 물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정도는 일을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둘째, 영의 유익이 됩니다.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날을 구별하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그룹 나눔

1 당신이 지금까지 최고의 쉼(안식)이라 생각하던 기억을 나누어 보세요.

2 일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3 당신은 안식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도전과 다짐)

일상 5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가정



오늘날 사람들은 수 많은 조직과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를 구성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회 조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도록 도우며, 가장 친밀한 교제의 형성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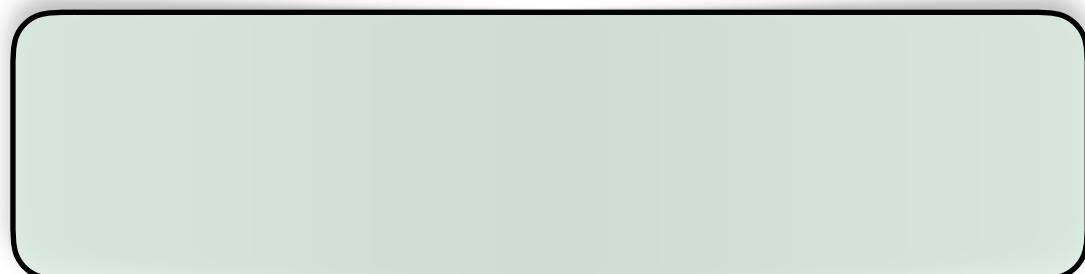
결혼



가정은 결혼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창세기 2:24, 개역개정



* '그의 아내'

→ 히브리어로 **בָּתִים אֲנָה** (베이쉬토), 여성 단수형 명사입니다.

남편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에베소서 5:25, 개역개정

*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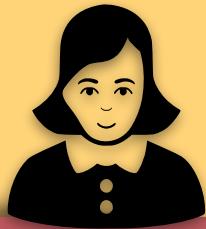


2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에베소서 5:28, 개역개정

* 자기 사랑과 아내 사랑이 충돌하고 갈등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 에베소서 5:22-24, 개역개정

- 1**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의 원리는 바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하듯' 이라는 명제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2**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복종을 명령한 표현입니까?

- ③ 성경은 남편을 향한 순종의 모범으로 사라를 언급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아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 베드로전서 3:5-6, 개역개정

*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순종 하였습니까?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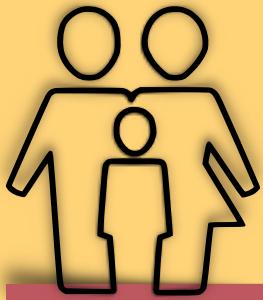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에베소서 6:1-3, 개역개정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두가지 명령과 두가지 약속은 각각 무엇입니까?

- 1 두 가지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입니다.

- 2 두 가지 약속은 이 땅에서 '잘됨' 그리고 '장수' 하는 것입니다.



부모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 에베소서 6:4, 개역개정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쉽게 분노하는 아이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까?

- 스마트폰 중독은 자녀들의 성향을 분노와 폭력으로 이끕니다.

- 자녀의 인격과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2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개역개정

소그룹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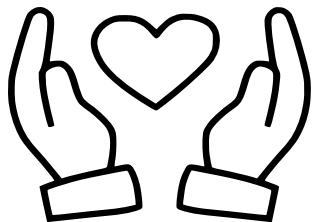
- 1** 가정 속 일상에서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행하는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 2**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변화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을 위하여 당신이 변화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자 1

삶터의 청지기

청지기



청지기(steward)란 고용된 관리자를 뜻 합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한 청지기적인 삶(stewardship)은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소중한 자원을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바로 우리의 삶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실습 장소입니다.

청지기적인 삶 (Stewardship)

1 만물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창세기 1:26, 개역개정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이미지'를 따라 온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맡기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문화명령)

2 다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비유를 통하여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청지기적인 삶의 모습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의 귀한 재산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 마태복음 24:44-47, 개역개정

선한 청지기의 특징

성경은 더 나아가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모습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통해 설명하는 달란트 비유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 😊

- 맡겨진 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 기회를 찾고 위험 감수
- 지혜롭고 신실함
- 가치의 창출과 배가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 😤

- 맡겨진 자원의 수동적 보관
- 기회를 잃고 위험 회피
- 소극적이고 경직됨
- 가치 창출 실패

청지기적인 삶의 본질

정체성 (Identity)

주인도
노예도
아니다

신뢰성 (Trustful)

창조하고
다스려야
할 자원과
권한이
맡겨졌다

목적성 (Purposeful)

주인의
뜻에
기초한다

적극성 (Active)

적극적
관리와
가치창출

책임성 (Respon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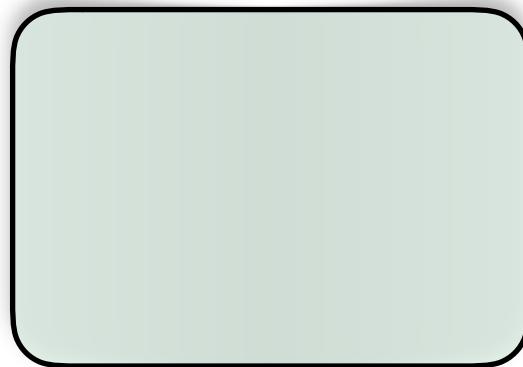
주인
앞에서
평가받고
보상
받는다

" 청지기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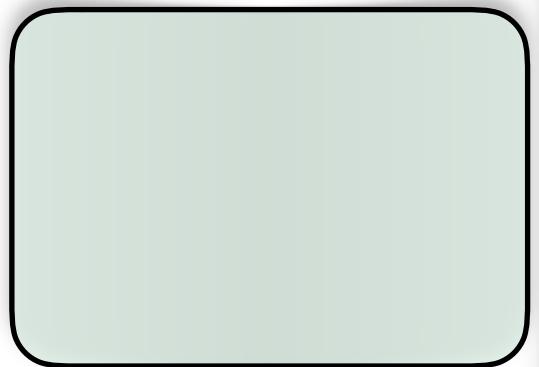
맡겨진 것에 대한 인식

하나님께서 나의 삶터에서 맡기신 것과 그곳에서 내가 해야할 직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나의 삶터에서 지금 내가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맡겨진 자원과 영역, 그리고 직무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자원/영역



내게 맡겨진 직무



“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과 맡겨진 직무를 이해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



청지기적인 마음가짐(Mindset)

청지기적인 삶은 삶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를 도전하여 청지기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게 하거나 '노예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삶터에 임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가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

**주인같은
(master-like)**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 고린도전서 4:7, 개역개정

**노예같은
(Slave-like)**

범사에 무관심하고
자신을 위하여 맡겨진
것만 억지로 수동적이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관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말라

- 갈라디아서 5:1, 개역개정

범사에 주인을 인정,
주인의 뜻을 따라
적극적, 자발적, 창의적,
신실하게 관리하고 다스림

**청지기적인
(steward-like)**



주인의 뜻에 따른 관리

애매하고 복잡하게 얹혀 있는 우리의 삶터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가치들로**' (**Kingdom Values**) 나타나며 이는 삶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삶터에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1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61-21)

2 지혜로운 농부 보아스 (룻기 2:8-9)

3 지혜로운 관리자 요셉 (창세기 3:3-4; 39:23-24)

4 지혜로운 상인 바울 (사도행전 17:17; 18:3; 20:35)

청지기적인 삶은 삶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터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 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른 가치들을 만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회계 체계 (Accounting System)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터에 주어진 질문들

- 나의 삶터에서는 어떠한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 지금 나의 재산 장부와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는 얼마 만큼의 잔액이 남아있는가?
- 나는 통하여 나의 삶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삶터의 청지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마태복음 13:44, 개역개정

청지기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터에 맡기신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쁨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 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그룹 나눔

- 1 삶터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지기가 아닌 노예나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삶터에서 어떻게 청지기적인 정체성과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 2 당신의 삶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삶터에서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대가를 지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 2

삶터의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



구약시대 제사장은 제사 의식의 집전 외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일, 피부병을 포함한 전염병의 확진, 간음죄 등 각종 재판 업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탁, 서원의 증거와 확인, 절기의 선언과 집례 등을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 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다스리는 것이며, 또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화해와 화평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성도의 제사장적 소명이 무엇이지 함께 살펴보고, 삶터에서 제사장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봅시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 1 '왕'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 2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 1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담당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 민수기 18:1, 개역개정

2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 역대하 30:27, 개역개정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 히브리서 7:1, 개역개정

3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 시편 141:2, 개역개정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그 사역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출애굽기 19:6, 개역개정



구약 시대 제사장 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
- 말라기 1:6, 개역개정

使命 言約

제사장의 사명과 약속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낫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 역대하 7:14, 개역개정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마치고 봉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적인 사명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1 제사장의 사명

- 기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 땅과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 해야할 일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됨
-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남
- 겸손: 스스로를 낫춤
- 영광과 거룩: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

3 하나님의 약속

- 기도를 응답
- 땅/죄/백성을 사하심
- 땅을 고침심: 가정, 일터, 교회, 세상

예수 그리스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 사도행전 4:27, 개역개정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봇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 사도행전 10:38, 개역개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 1 헬라어의 그리스도란 '기름부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의 메시야에 해당합니다
- 2 이것은 예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심을 뜻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요한일서 2:27, 개역개정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1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제사장의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 베드로전서 2:5, 개역개정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베드로전서 2:9, 개역개정

2 베드로전서 2:9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9:13, 개역개정



1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실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그룹 나눔

- 1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거나, 가족이나 동료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와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 하셨습니까?
- 2 제사장적 사역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역대하 7:14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제사장적 사역이 필요한 곳은 어디 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3 당신은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 등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4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벧엘교회 삶터 사역 기초 과정 교재

삶터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Copyright © 2019 by Life as Mission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이 교재는 벧엘 교회 삶터 사역원의 문서화 된 승낙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복사와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